

『한국환경농학회지』

녹색시대를 이끄는 농업환경연구자들의 열성으로 만든다



글 정종배
대구대 생명환경학부 교수
『한국환경농학회지』 편집위원장

30년 이상의 연륜으로 빛나는 저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과거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중심의 경제성장은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통해 전반적인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오염 현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농업도 최대생산을 목표로 하는 집약적인 현대농업 체계로 전환, 발전하게 되면서 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등으로 인해 농업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까지 훼손시키게 된다. 국민에 필요한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이 농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업환경의 보전 또

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1970년대 후반 분야별 환경문제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야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농업환경 분야에서도 1981년 초 학술단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학회의 발족을 추진하였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박창규 교수(고인)와 농촌진흥청의 정영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추진팀은 학회 조직과 연구 영역, 회칙 등 학회 창립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준비하여 1981년 3월 28일 경희대학교에서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농학회의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 12월 5일 고려대학교에서 제1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식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 농수산업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학술발전과 해외 관련학회와의 기술교류 및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농학회’를 창립코자 발기하오니……”라고 학회창립 발기문에서 밝힌 대로 한국환경농학회는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기반인 농업환경 전반의 관리와 보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초와 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기여하는 학회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 학회가 성장기로 접어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회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1994년에는 총회원 수 656명에 달해 전년 대비 24퍼센트, 1997년에는 총회원 수 861명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30퍼센트

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2000년에는 총회원 수천 명을 돌파하여 바야흐로 학회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 수에 비해 회비납부실적이 불량하여 맞닥뜨린 학회재정의 고갈, 투고논문 부족에 따른 학술지의 부정기적인 발간, 학술행사 참여 회원 부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1년은 한국환경농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공인학술단체로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로회원을 비롯하여 임원진의 의견을 모아 학회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학회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연례학술발표회를 1회로 축소하고 춘계 및 추계 전문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학회경비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및 학술지 발간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대폭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검색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학회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여 행정 및 학술지 발간업무가 한층 원활해지게 되었다.

이후 농약과학회의 창립과 IMF 사태 이후 산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수 감소 사태를 극복하고 현재 800명 이상의 회원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0여 개 기업체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정기학술대회 및 전문학술워크숍을 통해 회원의 학문적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연구조사용역 사업과 농업환경정책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국문학술지 『한국환경농학회지』와 함께 금년 창간된 영문학술지 *Journal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Environment*, 전문기술자료집과 학술도서 등을 발간하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꾸려가고 있다.

반년간지에서 계간지로 확대...영문학술지도 창간

한국환경농학회는 창립총회 이후 1981년 11월 21일 개최된 초대 이사회에서 학회의 전문학술지 『한국환경농학회지(*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를 연 2회 발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1982년 6월 9편의 연구보문을 포함한 10편의 논문을 게재한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1991년 10권을 발행할 때까지 매년 두 차례의 학술지를 발간하였으며, 1992년 11권부터 1995년 14권까지는 연간 세 차례, 1996년 15권부터 2012년 현재 31권까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태환경, 유기화합물, 생물환경, 환경독성, 환경화학, 환경미생물 분야의 연구보문으로 연간 네 차례씩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환경농학회지』 2000년 국내 학술지에 대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사업에서 한국환경농학회지는 KS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계속 평가에서 우수한 학술지로 평가받으면서 KSCI 등재지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경쟁력 있는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급 국제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지난 몇 년 간의 긴 논의와 준비 끝에 2012년 영문학술지 *Journal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Environment(JACEN)*를 창간하였다. JACEN의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서치 오픈 액세스(Scientific Research Open Access)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게재되고 인쇄본 학술지는 학회에서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학술단체와 학술지 관리/평가기관에서 학술지의 연간 논문 기준 편 수를 연도별로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회비납부 회원 수, 학술대회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 요건이 강화되어, 일정 기준 이하의 학회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 학술지를 위한 전략과 장애 극복

금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환경농학회지』를 국내 비의학 계열 학술지 중 최우수학술지로 선정하였다. 국내에 우수 학술지가 즐비한 가운데서 운이 좋아 최우수학술지로 선정되었다는 느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분명히 그동안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의 희생적인 노력,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이다.

국내에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마다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지만 『한국환경농학회지』 역시 31권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동안 투고논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심사의 지연과 불필요한 편집절차로 인해 정시에 학술지를 발간하지 못하는 사태를 흔히 겪었다. 필자는 학술지 편집에 오랫동안 관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술지의 질적인 개선도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우수한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학회 회원 각자가 우수한 연구결과를 생산해내어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의 발간을 총괄하는 학회 편집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환경농학회가 학술지의 KSCI 등재를 준비하던 때인 1998년경 학술지의 발간 횟수를 연간 4회로 늘리면서 게재논문 수가 부족해져 정시 발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시에 학술지가 발간되지 못함에 따라 투고논문이 함께 감소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학회 행정력의 부족, 학술지 발간과 관련

된 학회 제반 시스템의 부실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2001년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실질적으로 학술지 발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핵심이었다.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 관련 각종 규정을 세세하게 정비하였고, 전문 분야별로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투고논문을 해당분야 편집위원에게 할당함으로써 논문 심사위원 위촉부터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 편집위원이 주관하는 ‘편집위원책임제’를 도입하였다. 물론 편집위원책임제 아래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심사에 대한 우려는 전체 편집위원회의를 통한 재심절차를 둬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편집위원, 저자, 심사자 사이의 논문 원고와 심사서류를 포함하여 제반문서를 수발할 때 우편 대신 전자메일을 이용함으로써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학술지의 인쇄 포맷과 질적 수준 또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학회 사무국에 유능한 행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학회와 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 투고논문 수의 확보는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논문 투고에 대한 학회 임원진과 편집위원회의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도 필요하다. 유사 학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논문 투고 회원에 대한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술지의 논문 투고 자격을 비회원에게도 개방하였는데 투고논문 수의 확보와 함께 학회회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0년에는 온라인 투고와 심사를 위한 웹사이트를 학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개설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모습의 학술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환경농학회가 축적한 온라인 투고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련된 경험은 필요할 경우 다른 학회에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최우수학술지로 선정되기까지, 그동안 편집위원회와 학회 사무국에서는 『한국환경농학회지』의 양적·질적 수준을 각종 평가기준과 등재지의 위상에 걸맞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논문 투고부터 학술지의 최종 발간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해준 회원들의 노고가 우수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었다.

『한국환경농학회지』의 미래 목표 및 비전

한국환경농학회는 국문학술지인 한국환경농학회지를 나름대로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시켜왔다. 국문학술지는 연구자, 산업체, 국가기관 및 현장 영농인 사이의 국내 농업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정보의 교류와 활용 측면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므로 학술지의 국제화 여부를 떠나 계속해서 발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술지의 논문이 주로 국문으로 게재되다보니 따라서 국제적인 인용지수의 확보나 투고자의 국제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다수의 국내 국문학술지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또는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편집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한국환경농학회지』의 SCIE 또는 Scopus 등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호별 게재논문 수를 조정하면서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 및 편집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영문학술지 *Journal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Environment (JACEN)*를 창간하였다. 대구대학교 강선철 교수와 전남대학교 김인선 교수가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맡고 있으며, 편집진은 18명의 국내외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JACEN의 논문 투고, 심사 등 제반 편집 절차는 200여 개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온라인 학술지를 발간하는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Inc.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JACEN은 농업환경(Agricultural Environment), 농업화학(Agricultural Chemistry), 농업미생물학(Agricultural Microbiology), 농업생태(Agricultural Ecology) 등 농화학 및 농업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논문은 Scientific Research Open Access (<http://www.scirp.org/journal/jacen>)의 온라인상에 게재된다.

한국환경농학회는 국문학술지 『한국환경농학회지』를 더욱 내실 있게 꾸릴 것이며, 이제 막 창간한 JACEN을 빠른 시일 내에 SCIE 또는 Scopus에 등재하게 되어 농업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편협에 바란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고 과학기술과 연구 분야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간되는 많은 학술지들이 아직 국내 연구자에게조차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학술지의 국제화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국내 발간 학술지의 국제화에 있어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목적하는 대로 큰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 발간 논문의 해외 DB 수록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우수학술단체에 대한 선제적인 각종 지원이 필요하며, 편집 관련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에 학술단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